

# 불자라면 한번쯤은 봐야 할 '불교인의 구구단'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인본육생경> 주해서 발간

“은갖 경전을 다 읽어 보았지만 이것처럼 이해 안 되는 경전은 없었어요. 이해 안 되는 경전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요.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318책의 한글대장경을 완간한 역경보살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前 동국역경원장)이 필생의 과업이었던 <인본육생경>을 풀어 쓴 <인본육생경 주해>(동국대학교 출판부)를 펴냈다.

불가(佛家)에서 분량은 짧아도 난해하기로 소문난 경전인 <인본육생경>은 2세기경 후한 시대에 서역에서 중국으로 온 안세고(?~170?) 스님이 한역(漢譯)하고, 200년 뒤인 동진 시대에 도안 스님(312~385)이 주석을 써서 후대에 전해진 불교논리학의 고전이다.

월운 스님은 도안 스님의 주석을 풀고 이를 바탕으로 안세고 스님이 번역한 경문을 해석해냈다.

일생의 미완을 완성한 이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월운 스님 문화상 및 문도 일동은 12월 4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출판기념 회와 헌경식을 병행했다.

행사에는 월운 스님, 밀운 스님(원로회부 의장), 성다 스님(봉선사 원로),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정수 스님(봉선사 주지), 인목 스님(봉선사 前 주지), 명성 스님(운문사 승가대학장), 김용욱 교수(한신대), 이상현(교구신도회장), 신규탁 교수(연세대) 등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했다.

월운 스님은 법회에서 “옛날 역장(譯場)에서 선배역사(譯師)들이 종종 <인본육생경>이 난해하다고들 말했다. 몇 해 전 우연히 그 생각이 나 동국역경원에서 간행한 우리말 <인본육생경>을 찾아보니 우리말인데도 어려웠고 번역이 잘못됐다 해서 원전을 찾아봤으나 더욱 난해해 난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운 스님은 “이후 틈틈이 <인본육생경>을 보면서 한국불교의 자존심을 살려 보리라 생각하고 한 구절씩이라도 번역해 왔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 경전의 번역을 2008년 12월 역경원장 소임을 내놓은 후부터 시작해 3년여 동안 해왔다.

<인본육생경>은 중생이 무명을 뿌리 삼고 애욕을 거름삼아 삼계에 윤회한다는 전제하에 애욕을 8가지로 세분해놓은 경전이다. 잘 관리하면 팔애(八愛)는 팔해탈(八解脫)이 되고, 무명을 극복하면 멸진정(滅盡定)이 된다는 논리를 대승교적인 색채로 풀이한 짧은 경전이다.

불가에서 난해하기로 소문난 경전 3년동안 후학지도하며 틈틈이 해석 김용욱, “불교계 역사에 남을 일”

월운 스님은 6000여 자 밖에 되지 않는 <인본육생경>이 해석하기 난해했던 이유를 안세고 스님이 귀화인으로 한문 문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월운 스님은 “<인본육생경>은 심이인연을 토대로 한 업감연기설(業感緣起說)의 기본 경전으로 논리 전체가 불교인의 구구단과 같다”며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는 한 번쯤은 봐야할 경전”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의 경전 주해서 발간을 축하하는 사부대중의 축사도 이어졌다. 명성 스님(운문사 승가대학장)은 축사에서 “월운 스님이 한국불교의 거성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랜 세월 동안 월운 스님의 역경 작업에 무한한 존경심과 경의를 표한다”며 “스님께서 지금까지 일궈낸 다양한

성과와 그 업적은 불교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축하했다.

<인본육생경 주해>의 서문을 쓴 김용욱 한신대 교수는 “월운 스님의 이번 편찬 작업은 역사에 남을 일”이라며 “불교계 학승으로서 최고 어른이신 월운 스님이 평생의 필적을 내면서 내게 서문을 부탁한 발상이 기상천외하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 교수는 “서문을 부탁받고 나서 <인본육생경>을 공부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국 후한 시대에 이란 계통의 안세고란 사람이 중국으로 건너와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만 40여 책으로 방대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인본육생경>은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 중 초기경전에 해당되는 <아함경> 부분에 들어있다. 월운 스님이 왜 이런 경전을 번역하게 됐나를 깨닫게 됐고 존경심을 갖고 월운 스님의 경전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안세고의 역경사업은 대단했다. 서문을 쓰기 위해 공부하면서 중국에 최초로 불교가 들어오는 모습이 위풍당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월운 스님의 편찬 작업은 원호 스님이 주석한 <대승기신론>에 해당되는 수준의 작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월운 스님이 2001년 한글대장경 전318권 완간을 주관한지도 10년 세월이 지나고 있다. 몇 해 전 동국역경원장 일도 놓으시고 2년 전에는 산수(傘壽·80세)를 넘기셨지만 스님께서 여전히 학인들을 지도하고, 경문을 번역하시고, 문헌사료를 정리하고, 삼시 공양에 포행하고, 조석으로 예불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월운 스님께서 자상하게 풀어주시는 경전을 저희들 손에 쥐어주셨으니 이 책을 길잡이로 부처님께서 알려 주신 말씀을 알아차려 중생들 저마다 성불의 길을 기억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월운 스님은... 월운 스님은 1928년 경기도 장단에서 태어나 한학을 수학했다. 1949년 남해 화방사에서 대강백 운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56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1957~1961년 통도사 강사를 지냈다. 1963년 해인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조계종 역경위원에 선임됐으며, 1979~1993년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했다.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동국역경원장을 맡아왔다. 월운 스님은 40여 년을 역경위원으로 일하면서 은사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2001년 ‘한글대장경’을 완간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1994년부터 봉선사 주지직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후학들을 지도했다. ‘능엄학림’ ‘불경서당’ ‘불교통신강원’ 등 그 즈음에 열었다.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 2003년에는 조계종 포교대상도 수상했다. 현재는 봉선사 조실로 있으면서 능엄학림을 통해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 <인본육생경>은?

<인본육생경>을 문장 그대로 직역하면 ‘인간은 본래 욕망으로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경’이다. 안세고가 한역(漢譯)한 <인본육생경>의 주석서를 낸 도안 스님은 여기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이 경의 핵심 논지를 초기 불교교리인 심이인연에서 유래한 것으로 봤다. 도안 스님은 ‘무명(無明)’을 본(本)으로 보고, ‘애(愛)’를 욕(欲)으로 보고, ‘생사(生死)’를 생(生)으로 보아 심이인연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사성제를 갖다대 삼아 인간의 현실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

경전은 내용상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누분포설(漏分布說)로, 미혹의 세계로 빠져드는 논리인 유전문(流轉門)이다. 둘째는 해해탈설(慧解脫說)로, 미혹에서 벗어나는 논리인 반류문(返流門)이다. 누분포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찾



는다. 해해탈설에서는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도안 스님은 승단제도에 있어 불교의 중국화를 다진 인물이다. 그는 <인본육생경>에 매료돼 “내가 늘 이 경을 손에 잡으면 쉽사리 놓지 못했으니, 즐기며 음미했던 것은 삼관(三觀)의 묘함이었. 머릿속에 깊이 간직하려던 것은 상념을 끊으려는 말씀[慧滅之辭]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안 스님은 이런 훌륭한 경전

이 너무 난해한 까닭에 논지를 꿰뚫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대받았다고 여겼다.

월운 스님은 그 이유에 대해 이 경을 최초로 한역한 안세고가 “안식국(安息國, 지금의 이란 지역) 태자로서 일찍이 출가해 후한 시대(147~170)에 중국에 건너와 95부 115권의 경을 번역한 최초의 역경가이지만 귀화인으로서 아직 한문 문법에 익숙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인본육생경>을 주해한 월운 스님은 조선 전통 경학가의 맥을 잇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소통을 중시한다. 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도안 스님이 주장한 삼분과 판설(三分科判說)에 따라 서문·정중분·결정분으로 나누어 각 구절을 주제별로 과목을 치면서 세밀한 분석을 했다. 그 결과를 한 장의 과도(科圖)로 만들어서 별지로 삼입했다. 후학들을 위한 석학의 치밀한 배려가 느껴진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불전에 <인본육생경 주해>를 올리는 월운 스님



동국대 정각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월운 스님(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김용욱 교수(왼쪽에서 세번째)

한 권이면 법을 배울 수 있다

# 빠알리의 경전

## 어려운 삶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과 평화와 행복을 선물합니다.

‘빠알리어’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이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언어 그대로 전승되다가 쓰여진 경전이 빠알리 경전이다.

이 책은 요약이 아니다.  
중요한 경전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철저히 저자의 개인적인 첨가를 배제했다.

**책의 특징**

1. 불교의 근본 경전인 빠알리 대장경의 다섯 니까야와 율장에서 선별하여 한 권으로 엮었다.
2. 교리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3. 부처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선별하였다.
4. 주석 없이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번역하였지만 꼭 필요한 주석은 짧게 달아 번거롭지 않게 하였다.
5. 부록에 빠알리 경전과 연관된 내용/주제별로 자세하게 찾아보기와 고유명사와 낱말 찾아보기/부처님의 활동 지역과 아소카왕의 담마 사절단을 파견한 지역을 정리한 지도 등을 수록하여 이 한 권으로 빠알리 경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두루 갖추도록 하였다.

일야 역편 | 신국판 양장 | 752쪽 | 값 28,000원

### 당신의 마음은 몇 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이랬다저랬다 간사하게 변하는 마음의 정체는?  
내 마음은 어디에?, 이러한 궁극음을 파헤쳐 마음의 본체 탐구를 위한 책.

### 마음공부 첫걸음

| 유식 입문 |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글·김명우  
224쪽 | 값 9,000원

### 불자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연말연시 맞춤 선물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

-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명확·풍부하다.
-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김승동 편저 | 1,216쪽 |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값 38,000원

민중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3450 (예금주: 윤재승)